

안철수, 5·18 광주서 민주 바닥민심 훑었다

1박2일 일정 지지단체·지역인사 간담회 등 '강행군' "다양한 의견수렴 대신 영향력 키우기 주력" 비판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5·18 정국을 맞아 광주서 1박2일 간 강행군을 하며 민주당 심장부의 바닥민심을 훑었다.

특히 안 의원은 광주서 여야 기성정치권과 대립각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표방하는 새 정치 비전과 인재 영입 기준 등을 제시하며 독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에선 안 의원의 광주 행보가 5·18 주년을 맞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 넓히려는 시도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 전날인 지난 17일 광주를 방문해 전야제와 다음날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뒤 대선 당시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단체 관계자 및 지역 인사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강행군을 펼쳤다.

안 의원은 1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는 지난 대선에서 한없이 부족한 제게 특별한 성원을 보내주셨다. 그것이 개인 안철수가 아닌, 변화에 대한 열망이겠는 걸 잘 안다"며 "지난 대선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며 자신이 변화의 중심점이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그러려면 많은 준비와 적지 않은 시간, 뜻을 함께할 좋은 동반자들, 많은 분들의 믿음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광주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씨앗과 중심이 되어달라"고 호남에 대한 강한 애착을 표현했다.

이는 안 의원이 '새 정치'를 기치로 정치 세력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새 정치의 지향점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형성된 기득권 정치체제 청산 ▲상대를 배척하고, 권력 유지를 위한 낡은 '진영 정치' 청산 ▲정치 중심 의제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치 구조 개혁 ▲정치주체 세력의 다양화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광주는 안철수 정치에서 무엇이냐는 질문에 "광주는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어려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념과 지역갈등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광주가 항상 올바른 방향제시를 했던 만큼 또 한번 광주가 화해와 통합 등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구조개혁 등의 새 정치를 위해 광주가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어 대선 당시 자신을 지지했던 호남·제주권 지역포럼 관계자 15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별 독자세력화 방안, 신당 창당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릇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채운다는 생각

이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에 맞는 그릇을 함께 만들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장 '신당'을 창당하기 보다는 필요한 인제가 모이면 함께 독자세력화의 최종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또 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법조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에서 카톨릭센터에서 전야제 행사에 참석했으며,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립 5·18민주묘지와 구 도역을 둘러봤다.

그러나 안 의원의 1박2일간의 광주 행보에 대한 금지 않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라는 명분 아래 호남의 중심인 광주에서 지지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데만 주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지자 간담회 등이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사들과 이뤄졌다"며 "대선 이전 안 의원이 자주 해왔던 토크 콘서트처럼 열린 공간에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것이 바람직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 참석, 5월 유족회 어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오늘 결정

호남몫 받을까... 말까...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종 결과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 내외에서는 호남 정치권이 지도부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한길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호남 정치권 인사를 배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배려라는 조건에 호남 정치권이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호남이 정치적 자존심도 없이 지역적 배려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당 내외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윤근 의원은 19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 지역민에게 송구해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하지만, 호남 정치권이 언제부터 민주당의 취약지가 됐느냐. 이는 정치적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로 인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다"며 "지도부 진출을 이루지 못한 참혹한 현실을 견디며 호남 정치권의 내부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국회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라도 받아 지도부에 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만만치 않다.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며 "지역 정치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원외의 호남 정치인을 지명직 최고에 임명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은 필수불가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19일 선출직 최고위원 4명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부대표에 재선인 정성호(경기 양주·동두천) 의원을, 신임 원내대변인에는 홍익표 의원을 임명했다.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박민수(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이 임명됐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 여성의원 '소통정치' 활발

담양서 워크숍·'카톡 대화방' 개설 현안 의견 교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활발한 소통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지난달 카카오톡에 '대화방'을 개설, 당 내외 현안은 물론 소소한 세상사까지 털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이 처음 드러났을 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당일 오전 곧바로 규탄 회견을 여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대화방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오프 라인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성 운동계의 '대모'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의원들은 지난 16일 한명숙 의원 주도로 패유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박 전 이사장이 별세하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전체 명의

로 주요 광고를 신기도 했다. 또한, 10명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 참석 이후, 담양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박혜자(서구 갑) 의원이 주선한 이 자리에서는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진로 모색은 물론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여성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한 것과 관련, 여성 인재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성 의원들의 활발한 소통은 선거 패배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활력'하고 당내 여성 정치인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은 총 24명으로 18대 국회의 13명에 비해 10명 이상 늘어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실체없는 '안철수 신당' 기세 무섭다

지지율 26%...민주당의 2배 새누리 3%P차 턱밑 추격 호남선 40%로 크게 앞서

안철수 신당 '바람'이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민주당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은 물론, 새누리당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안철수 신당 창당 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은 26%를 기록, 새누리당의 29%에 겨우 3%포인트 뒤

처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민주당은 12%에 그쳤다.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 안철수 신당은 호남 지역에서 40%의 지지율을 기록해 민주당(18%)과 새누리당(9%)을 크게 앞섰다.

이는 호남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에 올라섰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안철수 신당은 서울(32%), 충청

(30%)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은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조사됐으며 민주당 지지자 중 상당수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안철수 신당은 30대 지지도에서 39%를 기록하는데 비해 민주당은 7%에 그쳤으며 20대 지지도에서도 34%를 기록해 민주당 16%를 앞

도했다. 특히, 40대에서도 30%를 기록,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신당은 무당파 층도 대거 흡수할 것으로 조사됐다. 무당파층의 32%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했으며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무려 38%가, 새누리당 지지자 중 12%가 안철수 신당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는 가정 아래 이뤄진 여론조

사라며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내심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계속 해메고 안철수 신당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창당된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이제 민주당도 본격적인 혁신에 나선 만큼,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간장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뻗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은행 6층(신세계백화점사거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19호 [광고]
광주점 **062-368-5075**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원장 김동진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의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갈갈하고 눈앞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여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옆구리가 결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츠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매 매 매

주인 임대함

010-4667-9300

목포. 2호 광장 코너

- 구, 맹수 한의원 건물(용당동 1056-5)
- 각층 100평, 1~5층 상가, 6층 고급주택
- 1층 - 아웃도어 매장확정
- 2층 - 한의원 확정
- 3층 -
- 4층 - 보험회사 확정
- 5층 -
- 6층 -